

만남

11

2018

통권 538호

특별기획 | 일상에서 제자답게

특 집 | 거룩한 공회와 참된 생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영락 청년들이 새롭게 펼쳐 일어나고 있다!

저 창공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지난 9월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 중국 연변으로 달려가 그곳 명동촌 명동교회 앞에서

선교비전을 품고 힘차게 환호하고 있다!

만남

2018년 11월호 통권 538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1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차례

이달의 말씀 02 • 영적 부흥을 위하여! | 김운성

특별기획 04 • 영락 기독교음악인 좌담회
일상에서 제자답게 삶의 정점, 찬양 드리는 시간 | 김희정, 박근우, 조덕일

특집 거룩한 공회와 참된 생활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0 • 그 고백과 비전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인들의 가르침 | 백성우

교육

영락지금 18 •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앙이 깃든다 | 우대권, 목진경, 오승현
역사탐방 22 • 영락 국제기드온협회 | 우대권, 목진경, 오승현
한 권의 묵상 26 •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읽고 | 정영근
너 괜찮아? 29 •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 홍만우

선교

해외선교 32 • MFE와 함께하는 땅끝 선교 | 한환희
국내선교 36 • 농어촌자립형 모델 정산푸른별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 박진배

교제

문화광장 39 • 11월의 영락영화
40 •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 이지현
영락의 울타리 44 •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 정우영
47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문성미
49 • 모든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 진명애

봉사

이웃사랑 51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 박신애

교회소식 53 • 간증주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54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등
60 • 목회력

61 • 새가족 환영
62 • 영락역사자료
아픔의 우물가 63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4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숨은그림찾기
화보 65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표지설명



영락 청년부
에브라임찬양팀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적 부흥을 위하여!



김 운 성 위임목사

최근 들어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이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세를 높이던 1970년대, 1980년대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대단했습니다. 여의도광장에 백만 명을 상회하는 인파가 모여 집회를 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 이래 최대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교회학교마다 아이들이 넘쳐나서 어른들보다 많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수년 내에 자립하고, 부흥했습니다. 영락교회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교회 규모에 있어서 최고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세대 이상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굳이 특정 교회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규를 겪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도덕성도 점차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온유와 겸손, 정직과 성실, 희생과 헌신이 줄어들고 있습니

다. 교인이라는 것, 직분자라는 것이 더 이상 인격과 삶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성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문 앞에까지 와서 포교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상들의 당연한 결과로 교회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통일 문제, 핵 문제, 동성애 문제 등의 심각한 현안에 대해 발언권을 잃어가고 있고, 자기 방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실종되어 가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뇌가 깊어지고 기도가 무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크고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신앙 유산입니다. 작은 성공으로 교만해진 많은

이들을 보면서 한 목사님의 겸손이 귀함을 새삼 느낍니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지도자를 보면서 한 목사님의 빈손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파이기주의, 개교회주의를 안타까워하면서 한 목사님의 연합정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를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 목사님의 부재가 더욱 아쉽게 다가옵니다.

11월호 『만남』을 받으실 영락가족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리 영락가족들은 더욱 마음을 굳게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계 원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원로께서 영락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저와 영락교회 교역자들이 더 깊이 기도하고 공부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건강한 신학에 근거한 분명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락교회의 사명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 모 기독교대학교에서 설교하고 나올 때 한 원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락교회가 아무 희망 없던 덴마크를 살린 그룬트비 목사님께서 일으킨 것과 같은 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 사랑, 덴마크(땅)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분도 이 땅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함을 절실하

게 느끼시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본 교단의 총회장이신 림형석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국 교회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하시면서 2019년도의 표어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목회자부터 영적으로 부흥되는 데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곱 권역에 목회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회를 돕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총회에 총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책임을 영락교회가 감당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한국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면서, 이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한 과제의 한 모퉁이를 영락교회가 감당하길 원하는 내용입니다. 영락교회의 책임이 점차 커짐을 느낍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키실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비상시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대한민국이 살길은 영적 부흥뿐입니다. 이 엄중한 때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영락교회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만남**

일상에서 제자답게

삶의 정점, 찬양 드리는 시간

‘교회음악’을 넘어선 ‘기독교음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교회이니까, 교인이니까, 늘 하는 찬양곡과 CCM,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기독교음악은 없을까? 세상 속에서, 이 땅 구석구석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에서, 고통과 근심 중에 신음하는 그곳에서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기쁜 소식의 음악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일을 하는 한국기독교음악인은 과연 누구인가?

한국 음악영역의 경우 기독교 영향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은 매우 낯설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 영향이 거의 전무한 영역, 가령 정치영역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질문은 너무도 어색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낯설 수 있다. 이 낯설음 앞에 선 머뭇거림... 우리 자신 스스로의 질문을 결여하고 있다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서다. 바로 이 점에서, 오히려 이 시대 한국에서 우리가 던지는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질문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제자답게’, 이달에는 영락 기독교음악인과 함께 대화를 나눠본다.

취재 김희정 객원기자 사회 박근우 객원기자 사진 조덕일 객원기자



왼쪽 왼쪽부터 김희정 권사, 백정진 집사, 김진수 권사, 박근우 집사 오른쪽 왼쪽부터 조성환 안수집사, 장세완 안수집사, 조영리 장로, 박신화 장로



사회 박근우 집사(마포·영등포교구) : 음악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교회에서 나누며 일상에서 제자답게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기독교 음악인으로서의 자

세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박신화 장로(갈보리 지휘자) : 시편 150편 끝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저의 사명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지휘로 하나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란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의 정점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그 시간 중에서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가장 정점(highest point)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권사(영락작곡가회 회장) : 작곡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찬양 곡을 써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완 안수집사(호산나 지휘자) : 음악의 신학적 측면은 현재성입니다. 하나님께 지금의 나를 바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호산나 찬양대에서 22년간 지휘하는 중에 공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이고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나를 바치는 것’을 소명으로 할 것입니다.



조성환 안수집사(갈릴리 지휘자) : 저의 삶의 목적이 찬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훌륭한 교회 음악인을 배출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가 자라나는 음악인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훌륭한 교회 음악인이 많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백정진 집사(베들레헴 지휘자) :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음악들을 통해 쓰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표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깨닫고 찬양의 본질을 살려내어 연주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음악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예배 음악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저 역시 늘 깨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 자신의 영역 속에서 달란트를 어떻게 기독교 음악으로 구현해 내십니까?

박신화 장로 : 제가 하는 음악은 거의 다 종교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이나 각종 예배에 쓰이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요. 또한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시립 합창단이지만 정기 연주 때에 종교 음악을 많이 선택합니다. 갈보리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 음악은 제 음악 영역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진수 권사 : 작곡가 입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늘 쓰게 됩니다. 지휘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고민하여 선택합니다.

장세완 안수집사 :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한다면 거의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의 발달과 더불어서 클래식 음악의 발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호산나찬양대의 순회 연주나 제가 근무하는 미션 스쿨의 채플 전체를 기독교 음악으로 코디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순회 연주에서도 기독교 음악을 합니다.

조성환 안수집사 : 성악가로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찬양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정신과 지금껏 해오고 있던 전통 교회 음악의 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릴리찬양대를 통해서 영으로 찬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정진 집사 : 교회 음악(기독교 음악) 중에서도 예

배 음악의 위치와 그 사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스퍼스’라는 예배음악 프로젝트 합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사용되는 음악, 즉 예전 음악(liturgical music)의 실제 사용되는 학구적이고 실험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휘하고 있는 베들레헬찬양대는 교회와 실제 예배에 맞는 현장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사회 :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는지요?

백정진 집사 : 예배 가운데 부르는 회중 찬송 안에서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 찬송의 내용이 말씀 속에 조명되거나 예배의 흐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순간들이 하늘의 예배와 연합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신화 장로 :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 후 선배님을 통해 CCC합창단 연습을 참관했었는데, 너무 훌륭한 합창을 듣고 그곳의 단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저의 전공이 음악(성악)으로 바뀌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를 음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수 권사 : 어릴 때 찬양을 통해 음악을 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접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음악의 길은 작곡하면서부터입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고(故) 박영근 장로님으로부터 작곡을 배우고 찬양 곡을 쓰면서 발표도 하게 되었습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하는 몸된 교회 사진 이미혜 기자

니다. 늘 하나님 찬양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곡을 쓸 때마다 기도와 고백이 될 때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세완 안수집사 : 저는 교회에서 6세부터 성가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음악을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안수집사 : 독일에서 살았을 때,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은 다 불교신자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역동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음악을 접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사회 : 음악을 하며 시련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장세완 안수집사 : 성악을 전공했습니다만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휘를 배웠습니다. 지휘를 하면 잘했다 칭찬받았지만 노래는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고 제 역경의 극복은 지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신화 장로 : 시련이라기보다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집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라는 말을 가족과 친척들에게서 들어야 했고,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미국 유학 5년 반 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귀국을 2주 앞두고 윤학원 장로님이 저에게 영락교회 찬양대를 권유하셨고 결국 영락교회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진수 권사 :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자유로이 쓸 때는 잘 써지던 곡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 담으려고 노력하니 실력이 부족한 저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작곡할 때 스스로 감동이 오지 않으면 소질이 없다는 좌절을 종종 느낍니다.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련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 안수집사 : 사실 저는 큰 시련은 없었습니다. 성악가로서 목소리가 잠깐 안 나오는 것 말고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님과 지인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순탄히 이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백정진 집사 :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음악에 대한 회의로 정체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보다는, 그저 그 어두운 때를 지나면서

‘나는 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소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백정진 집사 : 봉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역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준비합니다. 예배 안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단순히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소

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안수집사 :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락교회에 있는 동안 제 인생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장세완 안수집사 :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에서 가장 발전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음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음악은 흔들리지 않게 절실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 권사 : ‘영락 작곡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작곡하고 발표의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신화 장로 : 저는 찬양대에서 지휘하는 일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연히 직업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봉사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크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는 사역(직업)이어야 하고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입원한 적을 제외하고, 지휘 인생 40년 동안 한 번도 아파서 결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직업적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음악부가 교회 내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교회 학교와 연계된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조영리 장로(음악부 부장): 음악부는 각 찬양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배에서 바르게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며 찬양대

원들의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도록 영적인 교육이 잘 유지돼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더 웅장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연계된 사역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성에 호산나찬양대의 지원과 각급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선발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 정도입니다. 또 교육부와 함께 협조하여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음악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회 음악 발전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사회: 기독 음악과 일반 음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조영리 장로: 음악(音樂)은 ‘소리 예술과 시간 예술로서 지성적, 감성적 활동의 산물’을 말합니다. 그중 기독교 음악은 ‘기독교적인 삶에 관한 개인이나 공동체적인 믿음을 표출하는 것’으로 주제는 기도, 예배, 속죄, 애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 음악이라는 용어와 교회 음악을 혼용하겠습니까만, 교회 음악과 일반 음악의 차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치는 찬양이 교회 음악인 것입니다.

1980년대 이전 한국에서 음악가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음악 지도자들은 알게 모르게 제자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기독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클래식 시장이 줄어들고 교회 음악이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도 교회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회: 음악을 통해 귀한 향기를 풍기며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분들에게 감동 받았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본 좌담회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객원기자들
김화숙 집사, 안진영 집사, 임광철 집사, 이진영 청년

특집

거룩한
공회와
참된 생활그 고백과 비전
그리고 종교개혁 신앙인들의 가르침

I. 글 속으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공동 고백을 드린다. 사도신경 속에 등장하는 이 짧은 문구의 고백은 그 짧음과 대조되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오늘날 거룩한 공교회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약해진 이때에 이 고백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실천적 삶으로 회복하기 위한 단초를 본 글을 통해 짧게나마 탐구해보려고 한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모습을 다루어 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적 무력감과 왜곡, 위기 등을 살펴보고 이는 그저 시대적인 불가피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강동·송파교구



성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놓친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두 번에 걸쳐서 연재하게 될 이 글 중, 이번 호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과 비전이 교회에 처음 주어진 니케아 신경에서 그 의미를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이 고백이 중세 개혁신앙가인 칼뱅과 루터를 통해 개혁교회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II. 문제제기 : 거룩한 공교회, 오늘의 잃어버린 비전

매 주일이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김복음 집사님은 나름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태신앙이며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자라났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활동도 했고, 청년시절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주말의 시간을 거의 보내고는 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의 책임을 지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신앙생활은 빼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면

서도 항상 뭔가 허전한 무엇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허전함은 비교적 어릴 적부터 그의 마음속에 여러 다른 질문들로 존재해 왔다. 청소년 때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는 질문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대학생활을 통해 그 질문은 더욱 깊어졌다. 자유로운 대학생활과 학과를 통해 배우는 현대적 지식들에 비하면 신앙의 내용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삶의 고민과 아픔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는 했다. 하지만 모든 질문들에 답을 주지는 못하는 듯했다.

30대에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때로 모순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선후배와 직장 동료, 그리고 상사들에게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신앙은 그저 주말에 마음의 위로나 얻는 정도로 축소돼 보였고, 때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위로는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교회를 비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부당할 때도 있었지만 실은 꽤 많은 비판에 동의하는 바였기에 교회와 신앙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채 삶의 한 부분에 남아 있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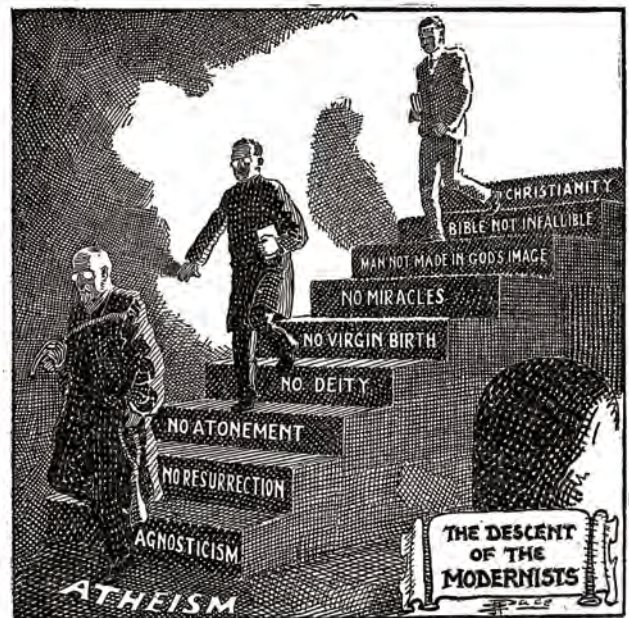
지금, 가정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신앙은 좀 더 다르게 다가온다. 다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못 했어도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뭔가 중요한 기초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좀 더 그 온전함을 찾고 싶지만 잘 모르겠고, 또 직장 생활의 고단함은 이를 찾아가는 여력을 막아서기도 한다.

위의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자신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신앙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신앙이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현대인의 의식 속에 신앙은 ‘주일’ 중심으로 분리되어 고착화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인의 사회적 삶이 주말과 주중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대부분 현대사회는 종교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여겨 공적 영역의 자리로부터 분리시켰기에, 이제는 기독교인마저 신앙을 자신의 사적인 것으로 여긴 채 사회적 삶에서 분리하여 오직 주말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모순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일상과 학업과 일터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되지 못한 신앙이다. 신앙과 삶의 분리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민과 노력과 열정이 담긴 삶속의 일상과 일터의 시간을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다가서서 이해하며, 정립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의지가 생각 이상으로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간혹 몇몇 신앙인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이를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야 할 이야기로 실천하는 데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일상의 삶의 자리, 신앙적 노력과 경주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 실천적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놓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자리, 특히 일상과 학업과 일터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서는 자리여야 함에도 우리는 이 간극을 메우는 신학적 비전의 부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셋째, 오늘의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모이는 교회’의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흠어지는 교회’에 대한 선교적 역할과 비전을 놓치고 있다. 일상과 분리된 주일만의 신앙은 신앙적 공급을 주일로 제한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은 주일에 받은 은혜의 양식으로 겨우 버티는 경우가 많다. 흠어져서 보내심을 받은 실제적인 삶에서 신앙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훈련과 싸움은 배제되거나 심지어 고려되지 않기도 한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말에 다시 모임 때는 고갈된 영혼이 되어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많다. 교회는 교회대로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주일 모임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과 소명을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거나 훈련시키는 데 소홀할 수 있다. 결국 ‘거룩한 공교회’가 본질적으로 고백하는 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근대화된 서구사회 이분화된 기독교신앙이 점점 하락하여 심지어 무신론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III. 거룩한 공교회, 그 역사적 고백을 찾아서

1. 니케아 신경: 초기 교회의 고백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복음은 본질적으로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선교적 신앙을 품고 있었다.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헌신에 따라 이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종종 세속적 도전과 이단의 도전을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단적 도전의 주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었고, 그 영향에 따라 교회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요동쳤다. 그 도전의 정도가 심각했던 때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기독교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공의회 중 하나가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이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신앙고백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것이다. 매우 짧은 고백이지만 이 ‘거룩한 공교회’ 고백은 이단의 도전으로 분열하고 흔들리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 되게 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음으로 그 신앙을 따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고백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교회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고백의 기초를 놓아 주었다.



주후 325년 5월 20일, 제1차 니케아 공의회 모습

2. 칼뱅의 고백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니케아 신조의 고백을 종교개혁가 칼뱅은 다음의 핵심적 요소로 이해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적인 교회’, 칼뱅은 비록 중세 가톨릭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칼뱅은 그리스도의



1549년 제네바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칼뱅의 모습

교회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가톨릭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계층 질서적 성직체계라는 가시적 외형 속에서 교회를 가두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먼저 신앙에 따라 살다 죽은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모든 선택된 자들이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머리로 삼아 사도적 복음에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고백이다. 칼뱅에게 거룩한 공교회로 “선택된 자들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나아가서 서로가 마디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성장한다 (엡 4:16, 롬 12:5, 고전 10:7, 12:12, 27). 이들은 하나의 신앙,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름받았고,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해 부름받았다.”¹

중세 가톨릭교회가 그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갈 때, 교회 자체를 떠나거나,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본래 교회의 부르심으로서 ‘거룩한 공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였던 개혁신앙가들의 고백과 실천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교회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때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다시 교회가 교회되도록, 거룩한 공교회로서 ‘하나가 된 거룩하고 보편적이면서 사도적인 교회’로 서도록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갱신해 가야 할 것이다.

1.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454-455쪽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다는 젊은 루터의 모습

3. 루터의 고백

종교개혁가 루터가 제시한 ‘만인제사장론’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성도들의 거룩한 역할에 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직자 제도 중심의 교회 이해와 권위가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키고 왜곡시켰다고 보며 그 개신과 개혁의 시작은 교회의 뿌리가 되는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그가 주창하는 ‘오직 성경으로 만’이라는 개혁신앙의 모토를 ‘만인제

사장론’과 연결시킨다. 즉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권위가 집중된 성직자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어서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농민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 결과 루터 자신도 이 만인제사장론이 무정부적이고 급진적이며 종교적인 개인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하기에 이른다. 즉 ‘성경 해석에서 자신처럼 권위를 지닌 종교지도자들과 교회와 같은 기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역사적 실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혁신앙의 흐름인데, 바로 교회 공동체와 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적 신앙인’으로서 즉 ‘만인제사장’으로 서는 것이다.²

이는 개신교 신앙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것으로 신앙은 그저 모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흠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맥그라스가 말한 것처럼, 개신교회의 이러한 역동적이며 삶에서 실천하는 책임적 모습은 “개신교의 유전자 구조”에 담겨 있는 것이며,³ 우리는 이를 니케아 신조가 담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의 주권적인 주님에 대한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A. 맥그라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국제제자훈련원, 2007), 12-14쪽

3. A. 맥그라스, 15쪽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 신앙인들의 가르침

IV. 다음 호 글을 약속하며, 거룩한 공교회, 그 참된 생활의 비전을 향하여

기독교 신앙은 그 초기부터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고백을 담아왔다. 니케아 신경에 담긴 ‘거룩한 공교회’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시대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간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여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룩’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의 삶과 신앙이 나뉘진 이분화된 모습은 한편으로는 모순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쉽고 편한 신앙의 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의, 사도적인,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책임적 신앙인’의 모습도 아닐 것이다. 또 다시 편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심 앞에 부단히 서서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고자 애쓰는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이유다. **만남**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앙이 깃든다

- 영락교회 축구 꿈나무들을 만나다

젊은이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영락지금! 이번 11월호에서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영락교회 축구 모임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학부, 호산나, 청년부를 넘어 자유인 예배까지 아우르는 축구 모임을 일궈낸 청년과, 영락 축구 캠프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 두 어린이까지, 축구 하나로 초등학교생부터 직장인까지 소통할 수 있듯이, 우리 영락교회에도 언젠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며, 11월호 영락지금 시작합니다.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유승현 기자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찬 : 영락 축구 캠프를 다녀온 초등학교 6학년 최윤찬입니다. 소년 1부 찬양대에서 알토를 맡고 있어요.

동호 : 안녕하세요, 소년부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는 김동호입니다. 영락 축구 캠프는 올해로 네 번째 참석했어요.

성욱 : 안녕하세요, 영락 청년 축구 모임에서 활동 중인 홍성욱이라고 합니다. 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찬양대 앙상블에서 첼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욱



윤찬



동호

세 분 다 영락교회에서 축구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먼저 윤찬이와 동호는 축구 교실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들었는데….

윤찬 : 저는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서, 여름 방학 때 영락 축구 캠프를 가게 됐어요. 이번에 처음 참석했지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감독님들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형, 누나들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동호 :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이번에도 캠프를 다녀왔어요. 친구도 많이 만들고, 재밌게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축구 교실은 매년 열리는 건가요?

동호 : 네. 매년 여름마다 3박 4일 동안 김형태 감독님과 함께해요. 올해도 설악산 수양관으로 가서 했어요.

윤찬이는 특히 다리가 아팠었다고 들었어요.

윤찬 : 네. 학교 축구 클럽에서 연습하다가 부상을 입었었어요. 다리에 김스도 했었기 때문에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축구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김형태 감독님께서 훈련을 통해 다리도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용기를 갖게 됐어요.

캠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동호 :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어요. 축구는 좋은데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함께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윤찬 : 식사도 너무 맛있었고, 축구가 끝나면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서로 많이 친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전술도 많이 배우고, 근육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성욱군은 영락 청년 축구모임을 조직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성욱 : 늘 생각했던 일인데, 큰 교회에 축구 모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저처럼 같이 공을 차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리만 만들어지면 모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먼저 대학부 친



아동부 축구교실 2018 여름축구캠프

구들과 축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받기 위해 홍보를 하던 중에, 생각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호산나 찬양대에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호산나에도 홍보하여 합치게 되고, 소문을 들은 청년부 분들도 받고, 또 일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관심을 표한 분들을 영입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유인 예배로까지 홍보의 발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세 분 다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축구 외의 삶이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성욱 : 저는 오는 연말 유학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는 첼로 레슨을 받고, 또 대학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만큼 제가 섬기고 있는 조원들의 심방도 다니면서 관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는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윤찬 : 저는 학교를 마치면 영어랑 수학 학원을 가요. 저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먹을 때가 돼요. 그럼 저녁 먹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쉬거나, TV나 유튜브를 봅니다.

동호 : 저는 바이올린 레슨도 받고 있고, 최근에는 피아노랑 드럼도 같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드럼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레슨이 끝나면 저도 윤찬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교회 광장에서 아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구독하는 채널이 있나요?

윤찬 : 저는 축구 용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는 채널을 구독해요. 축구화 같은 걸 직접 신어보고 차보면서 리뷰를 해주는 채널이라 유익합니다.

동호 : 저는 하나를 챙겨보기보다 여러 가지 관련 동영상을 주로 보는 편이에요. 저희 영락교회 뉴스 채널도 유튜브에 있어서 챙겨보고 있어요.

윤찬이와 동호는 축구 교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윤찬 : 같이 찬양대에서 섬기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재밌고, 같이 체력도 기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동호 : 모르는 친구들을 처음 보면 어울리기 힘든데, 축구 캠프에서는 같이 축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어요.

성육군은 궁극적으로 축구 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성육 : 그렇게 거창한 꿈은 없어요. 다만 교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점점 더 적어지기도 하는데, 교회 내에서 축구 모임처럼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임이 많아지면 젊은 사람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축구 모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랄 뿐이지만, 먼 미래에는 교회의 활력소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웃음). **만남**



청년축구모임

아동부 축구교실

유·초·소년부 대상으로 실제 유소년 감독, 전 국가대표, 현 대학선수들의 전문적인 강습을 통해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교회와 사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대광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 감독 김형태 안수집사(010-5668-3762)

영락 청년축구모임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락교회의 모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치지 않고 즐겁게 차차'는 motto 아래 꾸준히 풋살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대표 홍성욱 청년(010-3763-1836)

영락 국제기드온협회, 청년기자가 탐방하다



1985년 경 영락교회 순방예배시 한경직 목사님(아랫줄 중앙)과 함께 한 모습

불신자들에게 문서전도는 여전히 중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기? 찬양하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일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겠지요. 그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기드온협회입니다.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김한기 기자



안순근 원로장로



고상우 은퇴장로



김주선 은퇴장로



김진란 권사

‘국제기드온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제기드온협회’는 모든 인류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전하고 필요한 곳에 비치하는 선교단 체입니다. 1898년 출장 중 만난 미국의 두 영업사원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텔이 부족해 서로 모르는 사람도 같은 방에 투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차 위스콘신으로 출장을 갔던 니콜슨이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된 힐도 그 기도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타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며 바쁘게 사는 자신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이들은 다시 만나 자신들처럼 출장을 다니는 크리스천 여행자들이 서로 교제, 전도, 봉사하는 비전을 품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그해 봄, 단체명을 ‘기드온’으로 명했습니다.

기드온에서 하는 사역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드온협회가 창설될 당시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업상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호텔에서의 효과적인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각 호텔 프런트에 성경을 비치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드온협회 성경 배포 사역은 1908년 호텔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으로 시작돼, 그 후 유치장과 교도소, 병원, 군부대, 대학교, 청소년과 간호사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과 군대, 호텔과 학교 등 다양한 곳에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통일을 준비한 사역으로 북한에 배부할 수 있는 500만부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현수길 인하대 영문학 교수가 국제기드온본부에 성경을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락교회에서 시무하던 현수길 장로는 교회가 개척한 13개의 농어촌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유학차 미국에 갔을 때 호텔에서 봤던 기드온 성경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기드온본부로 연락을 해 농어촌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성경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드온협회 본부로부터 “기드온



송학승 은퇴장로



조건진 은퇴장로



전성희 은퇴장로



양인성 장로

성경은 기드온 회원들만이 취급하게 돼 있으므로 성경 배부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나서서 한국에 기드온 단체를 조직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등 여러 교회를 찾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실업인과 직업인들을 추천 받아 조직한 후에 국제본부에 연락했습니다. 1963년 10월 22일 서울 코리아하우스에 영락교회 교인 10명과 새문안교회 교인 2명이 모여 국제기드온 서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2003년 7월 한국은 자립 회원국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됐고, 현재는 우리나라에 80만부, 그 외 여러 나라에 9000만부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보다는 영상과 같은 매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서전도의 중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물자가 풍족하지 않은 과거에는 성경책도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나눠 준다 하면 굉장히 소중한게 여기고 사람들도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원선교를 위해 성경책을 배부하다 보면, 성경책을 무심코 버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드온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여러 나라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파일이 올라가 있고, 어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직접 성경을 찾아볼 일도 없고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대일로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전달 때, 대다수는 성경을 함부로 버리고 잊을지도 모르지만 일부는 그 성경을 보관하고 어느 때든지 다시 꺼내어 읽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알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도 기드온협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드온협회에도 젊은 20~40대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영기드온이 있습니다. 영기드온은 기드온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차세대 기드온 지도자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기드온 사역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기드온협회가 각 교회를 순방할 때마다 강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성경 제작에



홍순철 은퇴장로(온누리교회)



조규일 은퇴장로(신광교회)



박창원 은퇴장로(새문안교회)



윤상우 은퇴안수집사



영락 국제기드온협회 회원과 청년기자가 대화하는 중에

필요한 헌금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경제력과 시간을 내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불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포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중에 경제력과 시간을 갖췄을 때 기드온을 잊지 않고 본격적으로 참여해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영락교회는 한국기드온협회가 생기고 발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님은 유학 시절부터 기드온협회에 대해 알고 한국기드온협회가 창설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서울캠프가 생길 때 영락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또한 대형교회로써 많은 성도들과 예배시간의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순방예배를 한 해도 빠짐없이 해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드온협회가 배포한 성경책을 통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영락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안태운 안수집사



영기드온 김신희 집사



영기드온 김수홍 집사



목진경 기자

9월호부터 문을 연 ‘한 권의 묵상’ 섹션은 「만남」 독자들의 궁금함과 주님 사랑의 열기로 시작되었다. “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 회원들이 서로 추천한 도서를 독서하고 토론한다”는 소식을 독자들이 듣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도 함께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는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한 권의 묵상’ 섹션을 운영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읽고

저자 유기성 목사는 3대째 목사이며, 부산제일교회와 안산광림교회를 섬겼고, 현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있다. 목회자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 목회의 길을 숙명처럼 생각했던 시절, 그러나 그도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는 1984년 군목 훈련 중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그 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며’ 목회하는 삶을 날마다 훈련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 수첩, 그리고 인간 자아의 변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바라는 삶이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면서도 살지 못하는 왜일까? 이 질문에 저자는 자신의 삶과 목회 과정 중에서 깨달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답을 이끌어 가고 있다. 즉,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됨, 그 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며, 또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늘 기쁨 수만 없다.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며, 저자는 회개의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회개 없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회개 수첩을 가지고 사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수첩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지녀야 할 수첩이 아닐까 생각된다. 때로 우리는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물론 우리의 기질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정영근 장로
6교구
홍보출판부 부장

살아 계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실 것이다. 즉,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정말 자신이 죽었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밖에 구할 것이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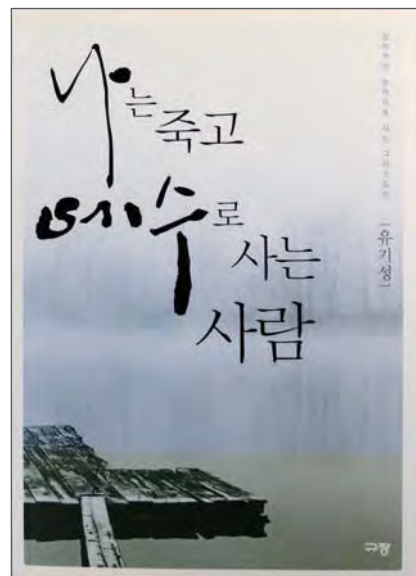
순종을 통한 성령충만,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

성령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체험을 구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맞다. 이제껏 나는 성령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자는 성령충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주님에 대한 열렬한 소망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충만이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달라지며 신앙의 차원이 달라짐을 확인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라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믿음 가운데 산다면 근심과 걱정 속에 산다면 비기독인과 기독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할 때 두려움은 없어지고 염려는 떠나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렇다.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 드렸던 그동안의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단지 소원만을 늘어 놓았던 것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천국 소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

기독인과 비기독인 사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천국에 대한 소망의 유무는 삶을 대하는 태도, 나아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언급한 ‘유언장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언장의 내용은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로 요약된다고 한다. 나도 비슷한 내용을 유언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며, 세상과는 다른 비전과 기대 가운데 삶을 살게 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한다. 교회에서 자주 듣지 못하지만 초림보다 더 많은 횡수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은 나를 들뜨게 한다. 이 소망은





당회 독서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하는 모습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저자의 말에 강한 수긍을 하게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가? 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내가 죽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잡게 된다. 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오만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렇다,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이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마음에 남는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린다면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며, 자유다’ 라는 저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가슴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다.

나는 죽고... 외유내강

이 책을 읽으며 나 자신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등 수없이 많은 질문이 마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은 지나 온 과거를 넘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귀한 기회를 내게 주었다. 분명 저자는 강한 톤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외유내강의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가슴에 남는다. **만남**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정말 열심히 하기만 하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땐 어떡하죠?” 몇 개월 전부터 나를 찾아와 늘 같은 질문을 해 온 학생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해주곤 했다.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보면 어린 시절 나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나는, 어른이 되어 목사가 되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파된 적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정글과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늘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면 늘 두려워지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 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죽는 죽음을 상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홍만우 목사
영락중 교목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나친 염려였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 그 고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더욱이 28세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의 원주민들에 의해 순교당한 엘리엇(Philip James Elliot) 이야기와, 그보다 어린 나이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이야기는 나를 더 걱정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20대 청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단지 죽음에 국한된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꿈이 커져가고 소망이 깊어갈수록,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질수록, 그 반대편에선 두려움의 그림자 또한 함께 짙어져갔다. 그래서 나 역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땐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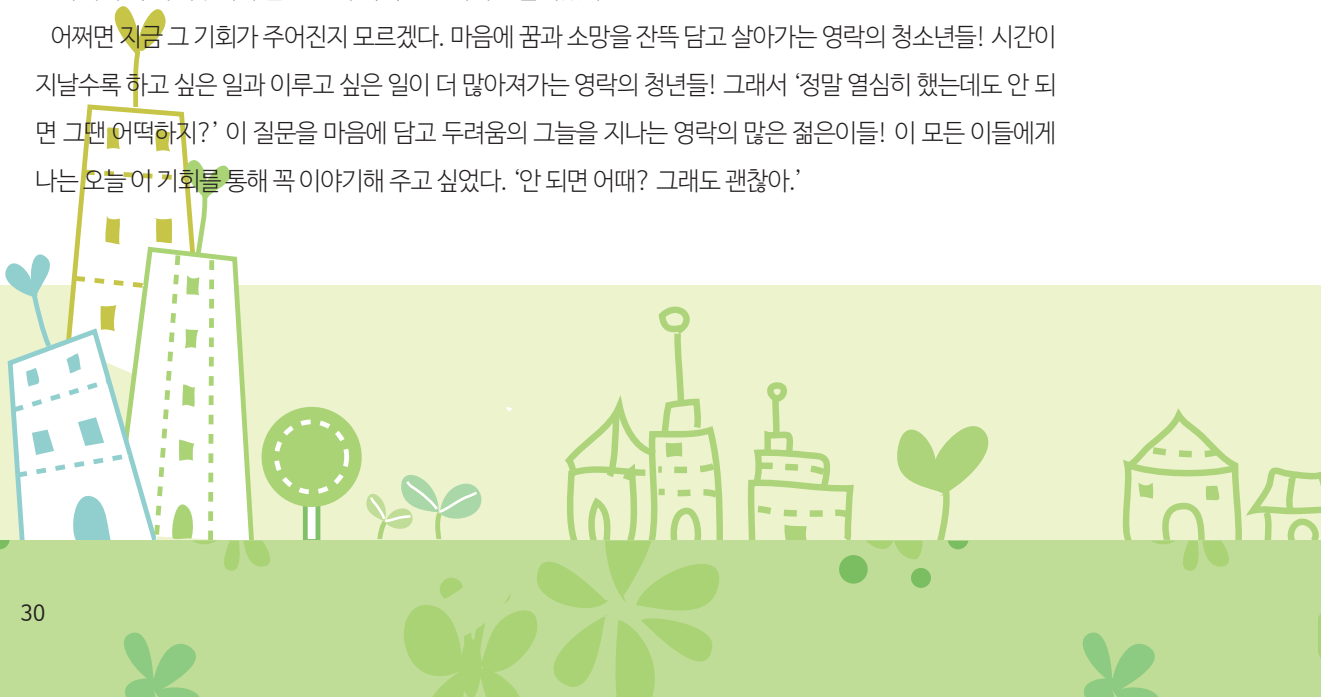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의 그늘 속에서, 한 권의 책을 만났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최춘선 할아버지’를 세상에 등장시켰던 김우현 감독의 ‘팔복’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였다. 이 책과의 만남을 통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두려움의 그늘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 죄악의 실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책이 말했다. 마음에 품은 생각, 곧 미움이 살인이고 음욕이 간음이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죄악의 실재라면, 그 반대로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한 소망과 아름다운 꿈, 이 모든 것들도 이미 다 실재요 열매가 아닐까? 비록 겉으로 드러난 결실은 안 보였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면 우리를 이미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글을 읽으며 나는 내 눈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 내 마음의 꿈을...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미 실재로 받으셨다니... 그래, 그러면 됐다... 그거면 됐다...’ 정말이지 충분한 위로였다.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위로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군가에게 꼭 나눠주어야 할 만큼의 넉넉한 은혜의 선물이었다.

어쩌면 지금 그 기회가 주어지지 모르겠다. 마음에 꿈과 소망을 잔뜩 담고 살아가는 영락의 청소년들! 시간이 지날수록 하고 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이 더 많아져가는 영락의 청년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땐 어떡하지?’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두려움의 그늘을 지나는 영락의 많은 젊은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나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있다.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꿈을,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모든 진실한 열망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뿐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으니까. 주님께는 그 모든 마음들이 곧 이미 이루어진 실재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인생은 때때로 포기하지 않아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 싶은 진짜 위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 소망의 실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다.

엘리엇(Philip James Elliot)을 생각해 보라. 그는 아마존의 정글에서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향해 이야기 했다. “What a Waste!”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 죽음을 낭비라고 했고, 우리는 그 죽음을 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 아마존정글을 복음의 열매로 물들이셨다.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이야기는 또 어떠한가? 불타는 제너럴서먼호를 빠져나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의 목을 베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적어도 그의 눈으로 그 실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의 소망을, 소망이 아닌 실재로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실재를 이루어 주셨다. 그 결과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진다. 꿈꾸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욱 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 두려움은 필요 없다. 혹시 두려움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조용히 속삭여보자. ‘안 되면 어때?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만남**



MFE와 함께하는 땅끝 선교



한환희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훈련학교 MFE 리더



9월 1일 오후 2시 봉사관 504호 MFE(Mission Field English, 선교현장영어) 2018년 가을학기 개강에서의 리더 소개시간. 예상치 못했던 리더들의 간증에 리더 소개 시간이 길어진다. MFE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모태 신앙으로 교회 출석만 하다가 MFE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 새로 발견한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방학 중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이태원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 등 MFE를 통해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간증이 이어진 것이다. 과연 MFE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MFE가 걸어온 길

MFE 프로그램이 영락교회에 개설된 것은 올해로 19년째가 된다. MFE는 영락교회 선교부 선교훈련학교(선교부장 정천우 장로)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선교사 양성을 위한 주말 과정이다. 2년 과정이지만 봄, 가을 언제 시작하든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매 학기 교재와 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에 당시 영락교회 선교부의 주명철 전도사와 예시나워 선교사를 통해서 MFE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고, 외국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열어 주셨다. 이어서 선교제자훈련(세계관 학교)과 네팔예배, 몽골예배, 러시아예배 등 외국인 예배가 만들어졌다.

MFE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명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MFE 2017 봄학기 수료식



MFE 2018년 봄 리서치 투어(선교조사여행) 때
양화진 탐방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를 MFE의 표어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훈련되는 MFE를 통해서 선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MFE에 훌륭한 강사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MFE 강의를 담당하신 분들은 모두 8분이다. 1대 Ruth Marie Eshenaur 선교사, 2대 Jay Kronish 이스라엘 선교사, 3대 Sue Ji Kim 재미교포 목사, 4대 Henry Lee 재미교포 중앙아시아 선교사, 5대 Robert McCormick 미국인 목사, 6대 John Flett 장신대 교수, 7대 Gabriel A. Segoine 선교사, 그리고 현재 Kelly Cross 미국인 선교사가 강의를 맡고 있다.

특별히, 본 프로그램의 초대 강사셨던 에시나워 선교사님(1936.07.16~2017.03.13)께서는 아프리카, 대만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1984년에 한국에 들어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제3국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하는 사역을 담당하셨고, 여기서 만난 제자인 인도 현지교회 리더 Mrs. Hawiphal과 Rev. Kampu Bailong와 함께 인도에 3개 학교[Asia Antioch Seminary, Ruth English (elementary) School, Antioch School]를 설립해 인도 동북부 지역의 교회 개척과 선교사 양성 및 어린이 교육 후원에 평생을 바쳤다. 영락교회에서는 1992년부터 청년부 영어성경반 강사로 봉사를 시작하셨고, 2000년부터는 선교부 MFE 과정을 개설해 첫 번째 강사가 되셨다. 에시나워 선교사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되고 검소

한 삶을 사시면서도 인도 선교지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2016년 말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해 미국에 가셨던 에시나워 선교사님께서 지난해 봄 고향에서 외롭게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이 많지 않았고 평생 독신으로 외롭고 가난한 삶을 택하셨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가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다는 생각에 숙연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MFE 후임 강사님들도 모두 신학적 지식과 선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각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 넘치는 강의와 지도로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남기셨다.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무슬림 지역 선교에 헌신하신 선교사님, 지금은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인생을 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며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신학생이 되신 선교사님 등등.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강사님들을 MFE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금 되새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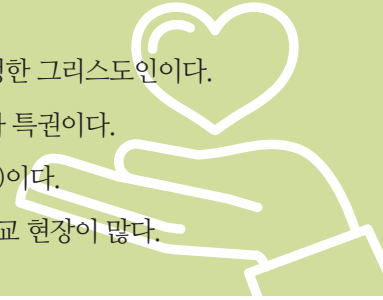
MFE에서 배우는 것들

MFE에서는 주로 제자훈련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를 위해 Multiply(Francis Chan저)와 Worldwide Perspectives(Meg Crossman편)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지에서의 복음 제시를 위한 훈련을 위해 영문 전도폭발과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개관, 성경공부 방법, 교회 생활의 중요성, 성령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며,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란 단순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때문에 MFE 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성경적 선교 원리, 세계 선교 역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타 문화 선교 전략, 기독교 공동체 개발, 선교 사례 등의 학습을 통해서 훈련생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다. 훈련생들이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1부 수업은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를 끝난 후 리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별 심화학습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토론하며, 영어로 복음제시 훈련을 한다. 이와 아울러, 조별로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에 가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매 학기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나 안산, 일산 등에 있는 외국인 교회와 처소, 직장 그리고 문화선교 사역지 등을 탐방하면서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선교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MFE에서 깨어지는 편견

- ①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 세계관이 변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 ②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다 →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 ③ 나만 좋은 제자가 되면 된다 → 제자를 양육해야 참 제자(그리스도인)이다.
- ④ 땅끝 선교를 위해서는 멀리 외국으로 가야 한다 → 국내에도 땅끝 선교 현장이 많다.



요즘 이태원에는 미국인을 포함한 서구인보다 상대적으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MFE에서는 수년 전 안산 외국인근로자 전도를 위해 그들의 작업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2~4명씩 조를 짜서 그들의 숙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며 전도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슬람 해외 선교는 위험하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무척 어려운데 국내에서의 이슬람 선교는 비교적 자유롭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이제 땅끝 선교를 위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더 큰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MFE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

이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영적 재무장이 시급한 때이다. 특히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출신 국가 분포도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일까, 기회일까? 그것은 객관적 데이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영락교회 MFE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훈련 참여가 늘지 않아 리더들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새 학기에는 더욱 더 많은 영락의 가족들이 MFE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의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19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락교회 MFE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를 위해 송고한 헌신의 정신을 보여 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영락선교훈련학교(YMTS)에 영락선교세계관 및 MFE 과정을 마련해 주신 영락교회 선교부와 리더들의 기도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안남**

농어촌자립형 모델 정산푸른별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박진배 안수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선교부 국내선교차장



미래 농어촌교회에 관한 자립형 모델교회를 제시하고 있는 정산푸른별교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많은 농어촌교회의 희망을 보여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산푸른별교회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소재지의 대지 214평에 건평 39평인 아주 작은 교회로, 청양(靑陽)의 뜻을 담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교회” 푸른별교회로 명하였으며, 2016년 1월 헌당예배를 통해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영락교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농어촌자립형 모델교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 농어촌 비전을 가진 젊은 목회자 발굴 및 교회개척을 위해 영락교회 선교부와 1여전도회가 세운 교회가 오늘의 정산푸른별교회입니다.

1980년대는 영락교회 청년부의 뜨거운 열정이 청년들의 하기선교를 통해 농촌교회에 파급됐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연로하신 부모들만 농촌을 지키는 형편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나이가 70~90세가 되었고 면단위 교회는 고령의 성도들만 10~20명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의 귀농 귀촌 바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은 고령화 및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골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고,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교육과 문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시골로 이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골을 살리기 위해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시골마다 교회가 없는 곳은 없지만, 그 중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재정을 탓하며 후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고, 없는 성도를 탓하며 의기소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목회



미자립 후원 교회에서 자립형 교회로 거듭나다. 창립2주년 감사예배 (2018. 1. 20)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울타리를 마을로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농어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어촌교회라는 마차는 목회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러 가야만 선교라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교회의 목회자는 목회와 경제적 자립 중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는 이중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과 역량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 만약 인적, 재정적 인프라를 갖춘 도시교회가 시골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영농활동을 도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이 시대 농어촌선교의 새로운 대안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월, 정산푸른별교회는 영락교회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마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 가지 선교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째, 마을을 섬기는 교회. 둘째, 차세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교회. 셋째,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3년 안에 목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며 기도했고, 2년 9개월이 된 지금 95% 이상의 자립을 이루었다고 고광진 정산푸른별교회 담임목사는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가정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약 20명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평균 3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함께 점심을 먹고, 식사 후에는 13명이 참여하는 제자학교(기독교기본진리반)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정산푸른



2015년 9월 30일 정산푸른별교회 기공예배 기공식

별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양계사업입니다. 목회자 가정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양계사업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정산푸른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와 함께 계획한 “3년 안에 100%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생산하는 유정란이 하루 330알, 한 달이면 약 10,000알이 됩니다. 이 유정란을 200여 명의 정기 회원에게 택배 발송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비와 택배포장비 등을 제하면 목회자 한 가정 이 시골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무수한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농어촌선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농어촌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어촌교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복음으로 지도하고, 총회와 협력하여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를 후원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농어촌교회의 자립과 유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자립형 1호 모델교회인 정산푸른별교회는 상징적인 농어촌자립형 교회로서 다문화 가정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역과 친환경 농경을 병행하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정산푸른별교회가 개척 3년 만에 자립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그의 선택 (His Choice, 2007)

감독 : 권순도 주연 : 최범호, 오한나
상영시간 : 1시간 34분 등급 : 전체 관람가

4일



1936년 마산. 평양의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목사님 같은 분이 평양에 꼭 필요하다”며 주목사의 평양행을 간곡히 설득한다.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는 교회의 경건함의 중요성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설교한다. 주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된다



11일

비투스 (Vitus, 2012)

감독 : 프레디 M. 무러
주연 : 테오 게오르규, 브루노 칸츠, 파브리izio 볼자니, 유리카 엔킨스
상영시간 : 2시간 1분 등급 : 전체관람가

박쥐 같은 예민한 청각과 거장 못지 않은 피아노 실력, 다섯 살 나이에 온갖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비투스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부모는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천재소년 비투스가 좋아하는 것은 홀로 사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

(The Chronicle of Anna Magdalena Bach, 1968)

감독 : 다니엘 위에, 장 마리 스트라우브 주연 :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크리스티안 랑
상영시간 : 1시간 34분 등급 : 15세이상관람가

네덜란드 출신의 건반악기 연주자이자 지휘자로 유명한 구스타프 레온하르트가 바흐 역을 맡았다. 전체적으로 바흐의 아내 안나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하는 바흐의 모습을 담은 정적인 장면들로 구성된 영화다. 여기서 음악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 (raw material)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18일



25일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 1987)

감독 : 가브리엘 액셀 주연 : 스테판 오드랑, 보딜 크예르
상영시간 : 1시간 42분 등급 : 전체관람가

덴마크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가 있었다. 젊은날의 사랑과 추억은 모두 마음속에만 간직해 살고 있던 어느 날,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편지를 품에 안은 바베트라는 여자가 나타나 성대한 만찬을 준비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채움과 비움이 교차하는 역설의 시간, 가을이 시작됐다.


너른 별판에 내리는 햇살과 그 속에서 빛나는 황금의 들판은 시인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한다. 가을은 우리의 시선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사색의 시간이다. 또 가을은 깊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다. 가을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자연을 통해 은혜와 은총, 그리고 신과 합일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포착해 형상화해낸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단단해지길 간구하면 좋겠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시선과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열매로 맺히길 소망하며, 이 가을에 함께 읽고 싶은 시들을 소개한다.

한국인들이 가을에 제일 많이 떠올리는 시는 아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과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아닐까. 독일 시인 릴케는 ‘가을날’에서 여름의 완성에 이어 가을을 ‘진한 포도주’에 깃드는 단맛으로 완성케 해주기를 신에게 기도한다. 외적으로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다. 남국의 햇살을 받아 자신의 언어가 무르익기를 바라는 것이다.

릴케는 스무 살에 고향 보헤미아를 떠나 그 이후로 줄곧 방랑의 삶을 살다간 시인이다. 그에겐 고독과 방랑과 책 읽기와 편지 쓰기 그리고 산책이 삶의 모든 것이었다. 이 시는 ‘가득 참’에서 ‘텅 빔’으로 변해가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인다. 계절의 풍요로움이 시인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는 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늘 가슴으로 느꼈다.

가을날(1902)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주소서,
이들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

가을은 들판의 곡식과 탐스러운 과일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다. 한편으론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고 옷을 벗는 비움의 계절이 가을이다. 별거벗은 나목의 힘으로 앙상한 겨울을 예감하는 고독의 시간이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에서 여름의 무성함과 소란함을 떠나 가을에는 홀로 정신과 고요의 영역에 침잠하기를 구한다.

가을의 기도(1956)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1913~1975)

이 시에 나타난 고독은 절망적인 고독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을 바라며 신(神)에게 두 팔을 벌리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고독’의 기도이다. 바로 신에게 두 팔을 벌리는 상황에 이른 시인의 모습이다. 이를 ‘절대 고독의 경지’라거나 ‘고독한 영혼의 심상’이란 말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어찌면 진정 외로워하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시인의 영혼일 수도 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시간을 가꾸게 하소서/가을에는/호을로 있게 하소서…’에서 ‘열매’는 내적으로 단단해짐을 의미한다. 단단하게 영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가을’과 ‘기도’로 표현된 것이다. 시인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독을 섞지 않은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가기를 갈망했다.

운동주의 ‘별 헤는 밤’과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내면의 깊은 곳을 응시하게 만든다. ‘별 헤는 밤’은 가을밤을 배경으로 현재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기를 세우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인의 마음 깊은 곳이 아프게 건드려짐을 느낄 수 있다.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을 위해 반드시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야 했다. 결국 바꾼 이름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별 헤는 밤’에서 별 하나에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보며 안타까워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는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함을 느끼지만, 죄책감을 감추지 못하고 미래로 자신의 이름을 덮어 버린다.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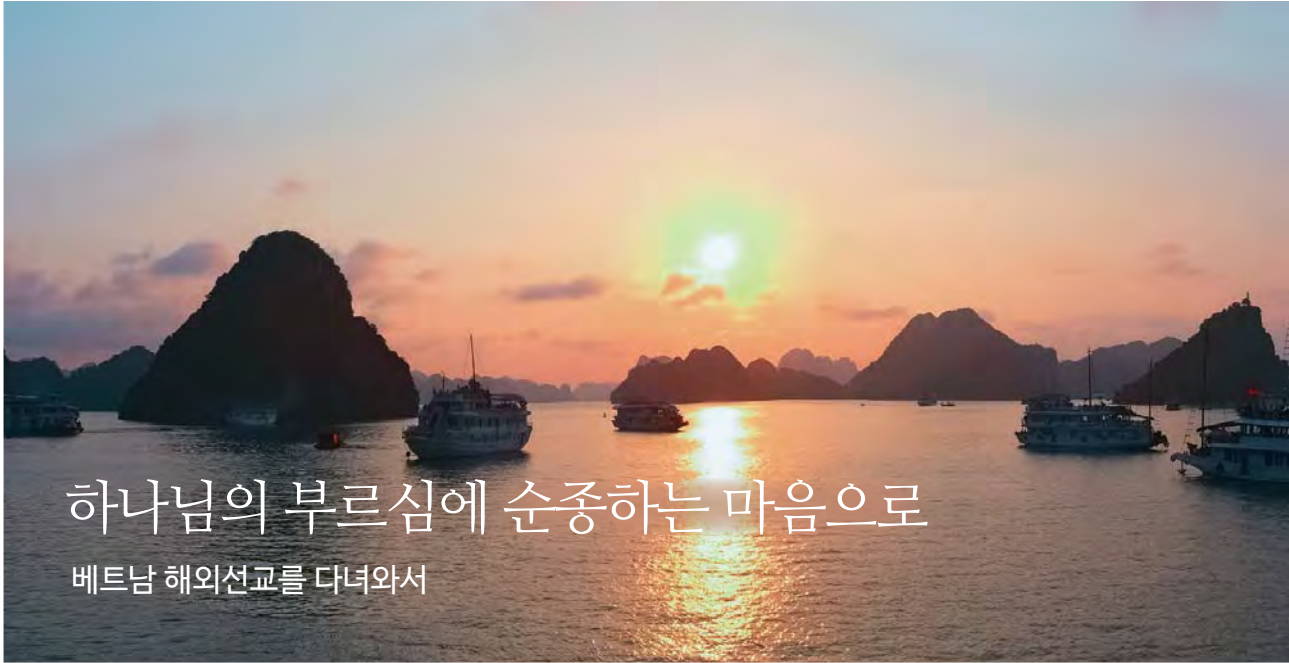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시인에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또 주님은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강한 의지로 생명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노래했다. 즉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다면 이 세속의 흔들림을 겁낼 것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외되고 핍박받아도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용기를 주는 시이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작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중에서). **한남**



이지현 국민일보 선임기자·시인

기독교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들의 믿음과 문학을 전한 <동주에서 아야코>까지를 썼다. 가족, 언약 등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주제로 ‘이지현의 두 글자 발견’을 연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트남 해외선교를 다녀와서

베트남 항구 모습



정우영 안수집사
서초교구
제2남선교회

이번 제2남선교회의 베트남 해외선교에는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박지운 목사님을 포함한 29명의 남녀 회원이 참여했다. 사역을 위해 방문한 지역은 크게 네 곳으로, 홍이엔의 복음교회와 그 인근 가정, 라이하 지역의 가정교회와 그 인근 가정, 썬떠이 지역의 우리주심교회, 바비산 기도원 부지이다. 이 모든 지역은 하노이로부터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지방 소도시 지역이다.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모두 마약 치유 센터를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4박 6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중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헌당예배를 드렸고, 우물 사역, 안경 사역, 사진 사역, 풍선·복음 팔찌 및 해나 등을 이용한 전도사역과 가정 방문 사역 및 기도원 부지에 나무 심기 등과 같은 사역을 수행했다. 헌당예배는 기존의 현지인 가정교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지어 현지 가정교회에 기증하는 것으로 제2남선교회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역이었다. 우물 사역은 늘 수행했던 사역으로 ‘생명의 샘’ 사역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번 해선 기간 중 새로이 시도해 본 또 다른 사역이 있다면, 가정방문 사역으로 기존의 것과는 달리 반나절 이상을 현지인 가정에서 함께 지내며 교제를 나누며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 현지인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다.



흥엔 복음교회 마당에 파서 마을사람들에게 기증한 이 우물을 우리는 '생명의 샘'이라 불렀다

첫날, 하노이 시내 미당 지역의 현지인 교회에서 진행한 예배부터 은혜가 충만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베트남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현지 교단 베트남 목사님 부부와 우리 K 선교사님 세 분을 가운데 세우고 둘러서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왜 그리 눈물이 흐르던지,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 사역이 금지된 나라,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나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교역자를 보며 마냥 가슴이 미어져 왔던 것 같다.

폭우 속에 진행된 둘째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엄청난 폭우와 번개 때문에 우리가 가려던 지역으로 버스조차 운행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누구도 주저함 없이 버스에서 내려 자신이 맡은 사역지와 자기 팀이 맡은 가정을 향해 빗속을 걸어갔다. 선물로 준비해간 TV를 머리에 이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길을 헤치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도랑인지 구별도 안 되는 길을 묵묵히 나아갔다. 짧게는 20여 분, 길게는 40여 분을 걸어 소명을 부여받은 가정에 도착하여 사역을 수행했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한 사람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었다. 마당까지 물이 들어찬 가정에 도착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점심을 지어 섬김의 사역을 완수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다.

셋째 날 밤 11시, 서울에 있었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아무도 불평도 불만도 없다. 오히려 북받쳐 오르는 감동에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장예배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느라



바비산 지역 현지 교인이 마련한 기도원 부지에 나무 30그루를 심었다

시끌벅적하다. 찬양도 뜨겁다. 통성 기도는 더욱 뜨겁다. 현지 교인들과 함께했던 헌당 예배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매일의 경건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였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참여할 뿐이라는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때론 우리의 자만심을 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진, 안경, 풍선, 가정 방문, 헌당, 우물 통수식 등 풍성한 사역의 기회 주심에 감사했다. 안경을 쓰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들의

기쁨을 지켜볼 수 있어 감사했고, 찍어 준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로이 보는 현지인들의 감회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특히 사역을 통해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감사할 것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했다. 가정 방문 사역을 통해 열악한 환경과 세파에 시달려 우리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울컥했고, 가진 것 없어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해 주심에 감사했다. 엄청난 폭우와 바로 옆에 떨어지는 천둥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의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용기를 주셨고, 아무 주저함 없이 전진하게 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을 완수케 하심으로, 선교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가정 사역 중 몸이 너무 아픈 임신한 아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젊은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고, 경제적으로 지독히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 6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외국인 선교가 금지된 나라이므로 선교사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야 하고, 집사는 형제로, 기도는 손 모음으로 칭해야 하고, 공개 기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기도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었다. 그런 차에 현지인들 앞에서, 누구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했었던 것도 끝나고 보니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귀국 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말이 떠오른다. K 선교사님 말씀이다. “선교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고,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며 감동할 뿐입니다. 그 감동과 감사를 얼마만큼 받아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의료선교부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일상을 뒤로하고 최승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34명이 출발한 지 하루 만에 만난 이스라엘, 지중해는 화창함 그 자체였다. 기도로 준비하고, 틈틈이 역사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가며 기다려 온 그날이었다. 믿음으로 은혜로 찾아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며 감사였다.



문성미 집사
노원교구
의료선교부 약무팀장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다 가족 같은 분들인데 함께 가자”는 최 집사님 부부의 권유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동안 사업장을 맡아줄 사람도 구해주시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일들도 술술 풀어주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환경을 열어주셨다. 공항에 도착하자, 내 가방을 맡아 챙겨주며 동행할 동무가 생겼다. 주 권사님은 출발할 때부터 나와 2인 일체가 되었다. 담소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며 나를 챙겨주는 동안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알아갔다. 3시간을 걸었던 페트라, 힘든 고개를 올랐던 마케루스, 텔 단, 가이사라 빌립보를 순례하는 동안,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성취감과 함께 내 안에 가뒤퍼였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외에도 여러 천사들의 배려와 사랑이 이번 여행의 MSG이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나를 부순 복음여행

예수님과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졌다. 마케루스에서 만난 살로메의 미련함과 누보 산에서 구리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완악함이 내게도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비아 돌로로사)’에서는 나도 유대인들의 틈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군중들과 함께 “죄인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러고 있지? 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해결해 달라”고 떼를 썼다. 원망도 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선상 성찬에서는 세상에 폭 잠겨있던 숨겨진 욕망과 탐욕들이 실오라기처럼 내 속에서 울음으로 토해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것을 먹고



9월 21일~29일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의료선교 및 비전트립을 다녀오다

마심으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돌아보게 되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안내해주시던 선교사님들이 순례지마다 사건과 의미를 설명하시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사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나는 그동안 몇 가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끙끙거리고 있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는 성경구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돈보다 명예를 우선

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마 5:38)”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좀 의외였다.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사람에게 몇 배를 더해야 직성이 풀리는 속성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신 거란다.

‘모세에게는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셨을까?’ 또 다른 궁금증이 시작되었다. ‘토사구팽 아닌가? 이렇게 억울할 데가?’ 그 부분만 읽으면 짜증이 났다. 그러다 선교사님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 모세를 향한 사랑이었다. 여러 가지의 답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이 땅의 고난이 다 끝나고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목적지였다.



요르단 페트라 원형경이장 앞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나를 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는가? 갈 때는 단지 안식이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제자 삼으시려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셨다. 더 늦기 전에 넓은 세계를 향한 뜻을 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앞으로 나의 신앙여정에 이 여행이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남**

모든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명애 권사
인천교구
갈보리찬양대

2017년 7월 23일 유방암4기 확진. 가족력도 없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친정어머니로 인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고, 병원에 아파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내게 암이라니.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되고, 일반적인 염증 증상이라 여기고,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과 결혼식 장소 문제로 결정이 늦어져 동네 의원에게 가니, 염증이 심해도 이럴 수 있지만... 조직검사를 권유받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몇 달이 걸린다는 국립암센터의 진료예약을 사정해서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신 정밀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시다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시다.

불안, 공포, 분노,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세상에 없으면 어떻게 하

나, 때가 되어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검사 후, 수술할 수 없는 염증성암 상태로 인해 우선 항암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에 두 종류의 전신 항암 주사약과 표적항암 주사약을 9시간 반 동안 맞았습니다.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으며, 6차부터는 수술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아서 매번 언제 수술받을 수 있을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치료하는 것 보면서”였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중, 9차 항암 주사 맞는 날 갑자기 수술하자 해서, 가장 가까운 2월 13일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때는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할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민폐라 생각하여 연락 오는 것을 피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잘 먹지 못하여서 체중이 줄어 2차 항암치료 후 암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며, 가

까운 이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더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이 병문안을 와 주시고 중보기도로 응원해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먹지를 못하여, 항암치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집에서 통원하며 3주 주기로 두 종류의 표적항암주사를 맞으며, 병 걸리기 전보다 활동을 많이 줄인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남들이 얘기하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자만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어느 분을 만나 그분으로 인해 아주 크게 경제적으로 손실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 기도로 매달리다가도 시간이 지나 힘든 일이 겹치면, 나의 자량과 교만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내가 잘 해결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태함에 빠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에 치처가며 저를 얹어 먹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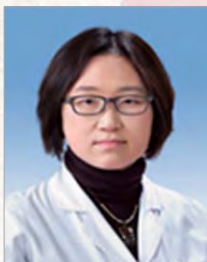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고난을 주시어 주님 곁으로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어서 숨을 쉬며 그리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에 살짝 전이되어서 수술 시 어떻게 걱정했던 부분도, 염증성암으로 넓은 부위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겨드랑이와 쇄골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양과 긴 시간 동안 360도 회전으로 방사선을 조사해야 하는 토모방사선치료도, 대장 내시경에서 2개의 용종 중 하나가 의심스럽다

했지만 더 심각한 부분을 치료하다 보니 뒤로 밀렸는데,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암이기는 했지만, 아주 초기였고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치 않아 6개월마다 추적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짧은 글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간중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위의 많은 분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잘 견디고 치료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몇 번인가 쓰려 해도 막혀서 펜을 놓기를 여러번... 그래도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위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께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전에는 가끔 특별한 날만 드리던 가정예배를 지금은 남편인 윤형 안수집사와 함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섰던 찬양대 자리가 지금은 매주 은혜의 시간으로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의 구석구석은 힘들다고 반응합니다.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회복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이 닫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제게 하늘 문을 여시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께 일일이 따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만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박신애 집사
중구·용산교구
의료선교부
서북병원 완화의료 센터장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완화의료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말기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의학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질환의 완치를 추구하는 기존의 의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또한 완화의료의 대상은 말기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과 그 외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완화의료에서는 의사, 간호사,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님, 스님과 같은 성직자, 사회복지사, 치료사, 자원봉사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완화의료 다학제팀을 운영합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아닌,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의 호전에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환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가족과 함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좋은 기억을 나누고, 의미 있게 임종을 준비하고, 생을 자연스럽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완화의료 병동에서 맨 처음 마주치게 되는 것은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육체적 고통, 난생 처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가진 환자입니다. 그 옆에는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소진,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의료비의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은 결코 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여러 유형

2017년 8월부터 세 가지 유형의 호스피스 사업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중심으로 환자의 환경에 따라 자문형, 가정형, 입원형(말기 암만 해당)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자문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현재 질환을 치료하는 주치의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스 서비스입니다. 신체증상관리 자문,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입원형 호스피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집에 계시는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평가와 상담, 심리적 지지, 환자 및 돌봄 제공자 교육, 요관, 장루 등의 관리 및 욕창치료, 전화상담 및, 돌봄 상담 등을 가정에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집에서 건디기 힘든 통증이나 호흡곤란, 식이량 저하 등의 증상이 있거나 간병해 줄 가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는 완화의료 병동에서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 병동에서는 말기환자들의 통증을 조절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약물치료와 음악, 미술 등의 예술치료, 림프 마사지, 물리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오심, 구토, 변비, 욕창, 호흡곤란, 연하장애, 식욕부진 등의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며, 욕창치료, 요관, 장루, 위루 등의 관리를 돕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불안, 상실감, 두려움, 공포, 절망과 슬픔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완화의료팀과 환자,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상담하고, 임종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도와드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등이 시행됩니다. 환자가 임종 후 사별한 가족을 위한 안부편지 발송과 사별 가족모임 등의 사별가족들의 사별 후 안정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사업

2015년부터는 완화의료 도우미(호스피스 보조 활동인력)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사업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간병비의 부담을 덜고, 환자 돌봄의 전문성은 높은 간병 서비스입니다. 완화의료 도우미는 영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완화의료 표준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분들이고, 환자 3명당 도우미 1명이 3교대로 환자분들의 식사보조, 체위변경, 이동, 위생관리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활동을 전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하루 8만 원 정도 부담하던 간병비를 본인부담금의 5%인 하루 4천원,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문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시범사업기간 중입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은 2018년 7월 현재 83개 기관(1318병상)이 운영 중이며 일부 병원에서는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말기질환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홈페이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

간증주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지난 9월 30일(주일 1부~5부)은 간증주일 예배로 드려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창 1:24-31)’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딸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살다가 천국의 딸에 모두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봉사관 앞과 베다니광장에서는 교구별로 봉사자들이 마련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고, 각 가정의 기도제목으로 교구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간증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간증주일에는 ‘출석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동의서는 개인별로 작성하되, 참석을 못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어 가족 중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가족사항 및 심방을 통해 수집된 기록 등 개인정보는 교역자에게만 제공된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 기자 사진 원종석·유승현 기자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지난 10월 6일(토) 오전 6시 30분 두 번째 맞이하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가 박규성 목사(목양부)의 인도로 본당에서 드려졌다.

기도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에도 기도회에 참석한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한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복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신명기 7:6~8)’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심을 위한 기복주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영락의 가족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김한기 기자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매 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에서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로 드려집니다.

2018년 11월 3일(토) / 12월 1일(토)

김운성 위임목사, 총회 군선교후원회 제3대 회장 취임



지난 10월 8일(월) 김운성 위임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는 ‘군복음화를 위한 군선교사업 정책 연구와 인력 및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총회장 직속기구로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회장으로 취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군종목사단(단장 중령 김택조 목사)으로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전달받았고, 취임사를 통해 “군선교는 민족복음화에 앞장서신故 한경직 목사님의 소명을 이어받아 영락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힘써 온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영락교회 성도들, 총회 여러분과 함께 군선교의 확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14주년 감사예배 및 제7회 정기총회에서 영락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총창단이 봉헌송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순미 장로(회장)가 군선교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를 담당했고, 영락교회 당회원들과 선교부 임원, 그리고 많은 교우가 참석해 군선교의 확장을 위한 영락교회의 의지를 널리 천명했다.

제공 선교부 사진 설경문 객원기자

제42회 정책당회, 2019년 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지난 9월 17일(월)~18일(화) 설악산수양관과 추양하우스에서 제42회 정책당회가 열렸다. 토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도 및 교우들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고자, 2019년 교회 표어를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정했다. 교육부, 고등부, 청년부와 새가족부에 전임교역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양육과 중직자로서의 발전을 위해 양육훈련부를 신설하고, 젊은이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4부 예배는 젊은이예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본당에서 개최하는 사경회나 수련회를 신설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제직 부서의 효율화를 위해 선교부를 전도부와 선교부로 나누고, 남녀선교회 연령대를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각 부서의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공간조정위원회가 통합 행정동 구축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회 일정은 매월 첫 주 지난 화요일로 변경하고, 향존직 선거는 2019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수요 1부 예배 찬양대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제공 당회

학교법인 보성학원, 개교 111주년 기념예배



학교법인 보성학원(보성여자중·고등학교)이 개교 111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5일(금) 오후 2시 한경직목사기념관(대강당)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혜경 목사(보성여고 교목)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홍성심 교장(보성여중)의 기도, 김순애 동창회장(보성학원)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자유를 위하여(요 8:32)’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독교학교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 정천우 장로(보성학원 이사장)가 30년 근속자인 이현숙(고), 강운용(고), 안학서(고), 오은진(중) 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동창회의 특송과 남명환 교장(보성여고)의 인사 후,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보성학원 이사과 동창,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임원들 그리고 영락교회 장로, 선교회 자치단체 임원들과 지역사회 목회자가 참석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공 선교부 사진 설경문 객원기자

제35회 대학부찬양대(SMC) 가을 찬양음악회, '예수! 나의 위로자'



대학부찬양대(대장 김정희 권사)가 '예수! 나의 위로자'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6일(주일) 오후 6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찬양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총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고, 1부 첫 순서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곡부터 2부 마지막 순서인 '예수밖에 전혀 없네'라는 곡까지 총 12곡의 찬양을 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는 곡조들이 베다니홀에 가득 울려 퍼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참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축제의 현장이었다.

제공 대학부

바로잡습니다

지난 537호 특별기획 5면에 김정훈 장로의 교구를 '동대문·중랑교구'로 정정합니다.

'한가위 밥사랑 나눔 수요일예배', 따뜻하고 풍성한 이웃사랑 실천



사회봉사부(부장 임종술 장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9일(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신성교회에서 서울역 인근 노숙자를 위한 '한가위 밥사랑 나눔 수요일예배'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매월 열리는 서울역 무료 배식봉사로, 특별히 이날은 김운성 위임목사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다.

점심식사 전 드린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갈 6:4~5)' 말씀을 주제로 약 3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시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사회봉사부에 소속된 하모니카 중창단 '올드 보이'의 은혜로운 연주가 이어졌고, 미리 준비해간 방풍 점퍼 500여 벌을 참석한 노숙자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하고 풍성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눴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노숙인선교 20주년 기념예배,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10월 3일(수) 수요 1부 예배는 본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선교 20주년 기념예배로 드려졌다. 정성훈 목사(예장노숙인복지회 이사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방송필 목사(총회 사회봉사부 서기)의 기도 후, 영락교회 하모니카 중창팀과 새살림공동체 찬양팀의 특송에 이어, 림형석 목사(예장 총회장)가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마 5:43~6: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림 목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길 때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2부 순서는 신미애 국장(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사회로 표창 수여 및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2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뜻 깊은 행사를 맞아 사랑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직장인을 위한 ‘목요 콘서트’



선교부 ‘금요직장인예배팀(팀장 변혜옥 집사)’은 10월 한 달 간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교회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목요콘서트’를 본 교회 선교관에서 진행한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의 전도 사역과 바

쁜 일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작은 휴식과 쉼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10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열리는 이 콘서트는 본 교회 시온찬양대 소속의 뮤지컬팀이 뮤지컬과 팝, CCM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난다.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해 열리는 이번 ‘목요콘서트’를 찾아오는 분에게는 김밥과 따뜻한 차가 제공된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림으로, 인근의 젊은 직장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설레는 첫 만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취재 박진현 기자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및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제60회기 순회헌신예배로 드려

지난 9월 16일(주일) 서울노회 60회기 남선교회연합회(회장 조규남 장로) 및 본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헌신예배에 앞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주님에 잡힌 삶'이란 주제로 제임스 리 장로(양산중앙교회 시무장로)의 특강이 있었다.

헌신예배는 박성만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권태훈 장로의 기도, 조지형 집사의 성경봉독 후, 임종희 목사(새



문안교회)가 '믿음의 열정(요 20:24~29)'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선 집사의 봉헌기도 후, 조규남 장로의 인사, 본 교회 남선교회의 영상 사역보고와 구성조 장로의 연합회 사업보고가 이어졌고,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헌신예배를 마쳤다.

제공 제1남선교회 사진 원종석 기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36회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서 개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회장 김순미 장로)는 지난 10월 2일(화) 오전 10시 본당에서 '오직 복음으로! 생명으로!'라는 표어로 제36회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선교대회의 대회사에서 김순미 장로는 "창립 90주년을 향해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70연합회 130만 회원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주도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자"고 권면했다.



박인자 장로의 기도와 연합찬양단의 찬양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나오미와 롯은 생활 속에서의 진정한 선교여성이었다.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탄생하듯 위대한 열매를 맺는 선교여성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한미옥 선교부장의 선언문 낭독 후, 선교사역과 나라를 위한 합심 기도, 사역을 위한 봉헌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립 90주년 기념 15년 이상 근속 해외 선교사를 초청하여 공로패를 수여했고, 예배를 마치고 오찬 후, 7명의 선교사를 통해 '증인에게 듣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선교 보고와 간증이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제공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영락사회복지재단 창립기념 감사예배, 사회복지사업 79주년, 재단창립 61주년 기념행사

지난 9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박남진 장로)이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흥로 장로(영락사회복지재단 서기 이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백민석 안수집사(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의 기도 후, '4장에서 6장으로(행 6:1~6)'라는 제목으로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도 모든 기관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맡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남진 장로(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는 “올해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증축된 것과 영락모자원 리모델링, 영락보린원 내부 공사 등을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3명의 후원자와 5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30년 장기근속으로 근무한 권기웅 안수집사(영락경로원 원장)를 비롯하여 2명의 20년 근속직원, 7명의 10년 근속직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영락교회 “헤븐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00%~85%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이 불편하신 분들과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
65세 미만: 치매,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 신청 무료 대행 등



※ 요양보호사 수시 모집(가족인 요양보호사 포함)

전화상담 02-2268-9623 방문상담 월~금 09:00~18:00(영락교회 정문 맞은편 보아스빌딩 302호)



베드로부 ‘홈커밍데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올해 29주년을 맞은 베드로부(부감 조병준 안수집사)가 지난 10월 14일 (주일) 오전 8시 30분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베드로부 30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첫 모임으로,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는 29기와 그 길을 앞서 걸

어간 선배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예배드리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예배는 홍만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로벤(베드로부 찬양팀)의 찬양, 방건우 교사의 기도 후, 홍만우 목사가 ‘성만찬의 의미(고전 10:16~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또한,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110여 명의 참석자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예배 후, 기수별 선배들이 나와 오랜만에 베드로부를 찾은 감회를 밝혔다. 4기 김진아 집사는 “부부 교사로 10년 넘게 봉사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야를 지나는 29기에게 선배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선배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돌보아주시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목회력

11月

2일(금)

연합권찰공부

3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4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1일(주일)

제직회

16일(금)

심방준비회

18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새가족환영회

25일(주일)

창립기념음악회, 사회봉사주일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9월 2일~10월 7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2일	안윤희	06	011
9월 5일	고도현	12	029
9월 9일	이길홍	11	057
	신옥자	10	000
	김형기	10	000
	임계인	08	070
	김용환	06	014
	장윤영	06	014
	김민경	06	019
	송은하	14	013
9월 16일	최흥식	13	019
	지윤선	13	019
	심현진	18	024
	이지영	03	027
	고상미	07	022
	변초빈	07	000
	이준현	07	000
	김라희	11	039
	홍태은	18	016
	하현	17	028
9월 23일	박명자	09	006
	이성남	12	019
	백금옥	02	035
	이순영	12	019
	이현숙	09	006
	이중현	05	061
	왕홍	05	050
	이진주	05	050
	김연우	04	014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9월 23일	이루나	09	011
9월 30일	임남순	06	000
	박덕순	05	015
	한복순	12	037
	김옥선	13	042
	김정애	07	000
	최단비	09	030
	우하윤	16	000
	우하민	16	000
	김예린	17	002
	서예준	09	003
	신지안	16	014
	이은성	03	039
10월 4일	이현주	03	034
10월 5일	진서인	05	007
10월 7일	문시웅	08	000
	박성근	10	000
	조준섭	15	000
	김경은	07	000
	유성미	07	000
	김호준	06	000
	문정훈	08	000
	이소정	02	000
	이효주	08	000
	이연희	08	000
	황인혜	16	000
	안지우	04	070
	안지온	04	070
	송하늘	14	000

9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무명	9/1	- 2002년~2007년 이철신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41건 - 2006년 오철훈 목사, 우강학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1건
장경미 권사 구로·강서·양천교구	9/2	- 사랑터 사랑부 기념 1주년 기념회보 1건 - 2000년 8월~9월 중등부 주보 6건
염현덕 권사 노원교구	9/2	- 1983년 6월~1989년 5월 「만남」 10건
나승우 성도 성남·분당	9/9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4건
윤재명 은퇴안수집사 마포·영등포	9/14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3건 - 1977년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2건 - 2010년 4월 25일 한경직목사 10주기 추모음악회 팸플릿 1건 - 설교예화 한경직 예화 1 외 한경직목사 관련 도서간행물류 8건
양계식 집사 김경희 집사 강남교구	9/16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사업 특별 헌금 통장 외 박물류 3건 - 1962년부터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8건 - 1985년~1989년 한경직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건 - 1980~1981년 박조준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2건 - 1986년 김윤국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1건
무명	9/16	- 1987년 영락교회 여전도회 40년 사료집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3.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4.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등장인물 중 3명의 사람이 마치 연극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듯이 환하게 드러나 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친 듯 아버지의 품에 쓰러져 있는 탕자인 둘째 아들, 그를 조용히 품고 다독

거려 주는 아버지, 그리고 일터에서 돌아와 못마땅한 듯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그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다.

처음엔 누구나 자기자신을 따뜻하게 용서받기 원하는 둘째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옆에 서있는, 자기 의와 분노에 사로잡혀 두 손을 모으고 완고하게 서있는 큰아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작은 아들에서 큰아들로 시선이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에 이르게 되면 이 두 모습의 나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두툼하고 투박한 손으로 등을 어루만져주며 모든 것을 품어 주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버지이다.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21세기 영적 부흥’, ‘동아시아 부흥의 불길’, 영락교회로부터 그 힘찬 발걸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앞쪽 표지에서 보셨나요? 영락 청년들이 힘차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저 백두를 넘어 선교비전을 품고 환호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뒤쪽 표지에서 보셨나요? 매월 첫 토요일 06시 30분에 드리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모습, 그리고 빗속에 어린 딸의 고사리손 붙잡고 본당을 향하는 청년부부의 그 의젓하고 힘찬 발걸음을 말입니다.

‘일상에서 제자답게’, 이제는 우리 교우들의 인사말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제자답게 힘차게 살아내고 있는가? 일상에서 제자답게!’ 지난 9월호 기독교미술인 좌담회와 10월호 기독교호스피스인 좌담회에 이어 이번 11월호에는 기독교음악인 좌담회를 게재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좌담회를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남」 특집 주제를 지난 9월호부터 “거룩한 공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일상의 삶’, ‘먼 옛날 남의 종교개혁’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의 종교 개혁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사랑의 눈길, 손길, 발길로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서로를 위해 교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의견

- 「만남」지가 엄청 좋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를 1-2페이지 정도 게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지를 보는 독자는 우리 교인이 95%이고 5-10%가 외부인입니다.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 같아 좀 더 활로를 개척했으면 합니다. 최성남 안수집사(고양·파주교구)

▶ 독자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mailto: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11월호
통권 538호

편집위원회

【만남편집소위원회】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형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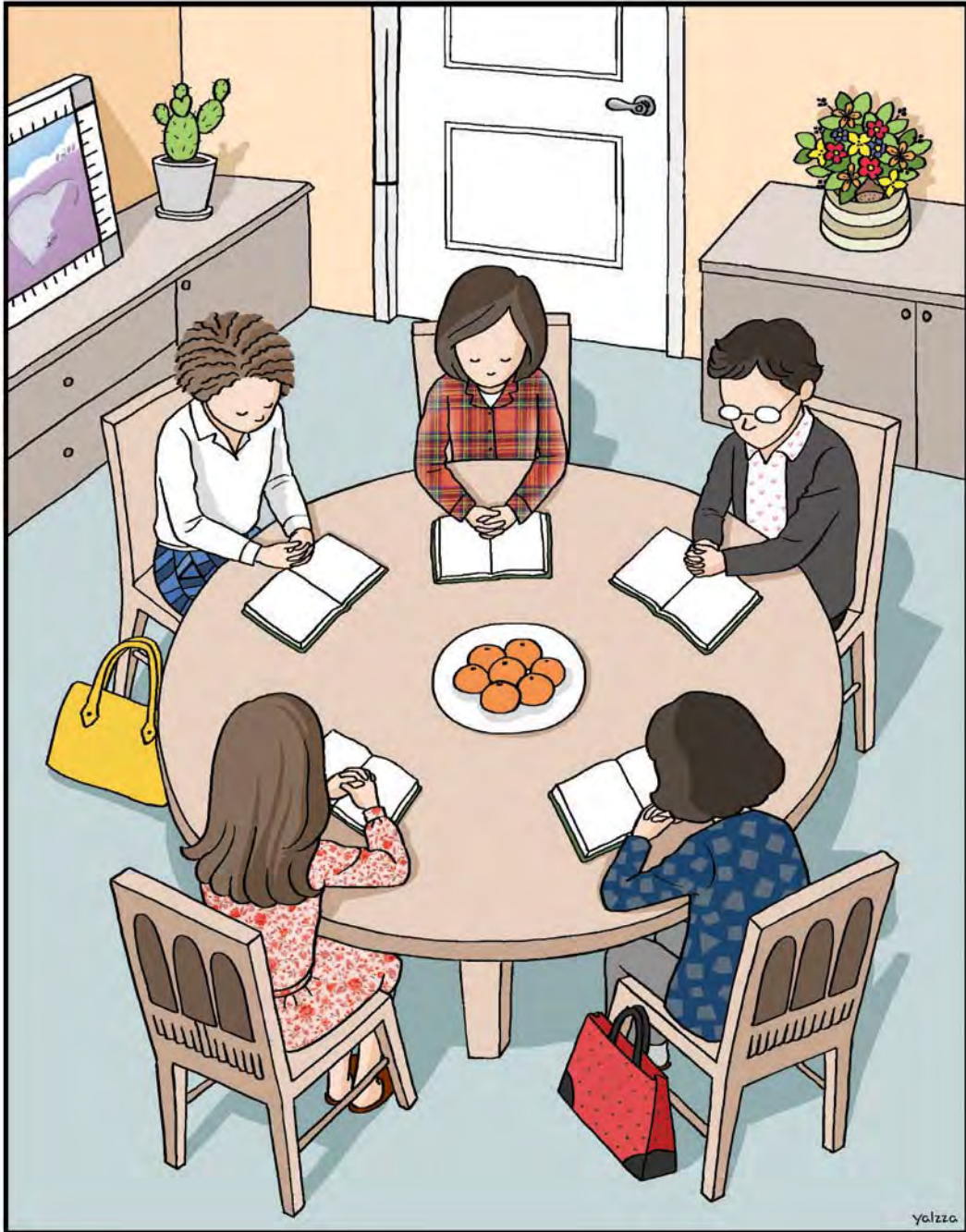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숨은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소그룹 멤버들이 권사님 댁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곳곳에 숨어있는 자, 하트, 나무젓가락, 밤, 아이스바, 세모 2개를 찾아보세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매월 첫 토요일 06시30분 본당에서 드리는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9월 1일에 이어 10월 6일 두 번째로 열렸다. 많은 교우들이 큰 소망을 안고 기도하며 본당을 입추의 여지도 없이 가득 채우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 아름다운 모습 이모저모를 이 화보에 담는다.



사진 김한기 기자

아름다운 묵상



렘브란트(Rembrandt), 캔버스에 유채, 262×205cm, 1663~1669

탕자의 귀향(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22~24)